괴물 다윗의 망할 추진력과 사고력

(사무엘하 11:6~27)

14.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5.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16.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17.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괴물 다윗의 망할 추진력과 사고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괴물 다윗의 망할 추진력과 사고력'
'괴물과 인간'이라는 소재의 영화가 참 많습니다. 늑대인간, 프랑켄슈타인, 좀비 등을 소재로 한 많은 영화가 있고 외계인을 인간 사회에 출몰시키는 영화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계 생명체가 인간의 주체적 생명을 죽이고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성장하여 활동하는 영화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외계에 그런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기보다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괴물 됨을 그려보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있는 어느 빌딩의 화장실에서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젊은 남자에게 20대 여성이 무참히 죽임을 당했는데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엄마가 아기를 굶겨 죽인 사건도 있었고, 20대 여성이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버린 후에 유유히 떠난 일도 있었고, 아빠가 아기의 장이 파열되도록 때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기사로 고발되는 것을 보면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 한 여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사람은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연관 되어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라는 독일의 여성 철학자이자 정치 사상가의 일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분이 뉴요커 신문의 특파원으로 예루살렘에서 열린 아이히만 전범재판에 참여하여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진부성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악이 진부하다'는 것은 참신하고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을 통하여 유태인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금이빨이 펜치로 뽑히고 안경이 쌓여

있는 장면들을 보며 600만 명을 살해할 정도면 그에게 어떤 특별한 특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유태인 대학살의 총책임자인 아이히만의 재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하여 그를 관찰한 결과 우리가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아저씨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의 진부성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폭정 아래에서는 생각하는 일보다 행동하는 일이 훨씬 쉽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뛰어나게 생각하며 계략을 짜는 한 괴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적 진리가 있는데 인간이 괴물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본성이 자기방어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괴물이 되는 것일까요?
다윗을 보면 밧세바를 범하기 전과 범한 후의 모습이 뚜렷하게 대비되는데 이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을 때에는 사사건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먼저 마음의 현실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부터 골리앗이나 사울도 바라보고 자신의 아내들도 바라보았으며 정치적 판세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형통의 연장선상에서 전쟁의 승리를 당연시 여기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모시는 일에 구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손가락이 부러져야만 움직이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당연시하는 동안에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구멍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강렬한 욕구를 느꼈던 것과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소나기처럼 퍼붓기 시작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의 나를 지키려는 자기방어본능이 생겨나는데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보시고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늘 뵙고 있는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정욕을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얘깁니다. 그 이유는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동침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고,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되는 것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고, 권력을 쥐고 임금이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천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미합니다. 그런 천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대신에 돈이나 여자나 권력이나 세상을 마음에 품는 것을 보면 외계인이고 괴물의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를 보면 얼굴에 눈이 하나만 있는 괴물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천사들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볼 때에 눈이 하나 달린 괴물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마음속에 품고 살면 주님과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보시기에는 이것 또한 전혀 인간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시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놔두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우선적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는가를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괴물의 상태이지 인간의 상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부모가 자식을 굶겨 죽인 사건을 보도한 여기자는 그 부모를 괴물이라고 했지만 자식을 굶겨 죽인 행동이 괴물인 것이 아니라 게임 중독에 빠졌을 때에 이미 괴물이 된 것입니다. 아빠가 아기를 장이 파열되도록 때려서 괴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고 분명히 다른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인데 그 상태가 이미 괴물인 것입니다. 내 자식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사랑하고 잘 먹이고 입히고 보살핀다고 해서 괴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생각할 때 자녀를 장이 파열되도록 때리지 않았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굶겨 죽이지도 않았고,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후에 버리지도 않았으며, 강남역에서 여자를 기다렸다가 살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상으로 생각하고 괴물이 아니라고 착각하는데 대체 누구의 눈으로 볼 때에 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범죄자들만 아니면 정상이라고 스스로 합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갖게 하시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또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는 십자가를 허락하심으로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조차도 이러한 은혜를 마다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건강과 자식과 권력과 육체의 안위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여기는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과 주님이 보시고 천사들이 볼 때에는 우린 이미 괴물 중에 괴물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선민의 나라 왕으로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자 자기방어본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데려와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생각에는 군인들이 집에 돌아오면 으레 아내와 동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를 상황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이 진정 다윗의 생각이란 말입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유다 성읍 중에 어디로 갈까요? /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묻던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을 때도 백성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지에 대해서조차도 바보 같을 정도로 하나님께 묻고 행했는데 이런 머리를 쓰는 달란트가 다윗에게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바람과는 다르게 충정어린 마음으로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않고 성문간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내는데,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장에 보내 혼자 남겨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충정어린 마음으로 아내와 잠자리도 하지 않았기에 절대로 편지를 열어보지 않을 것임을 다윗이 알았으므로 그를 죽이라는 편지를 그 손에 들려서 보낸 결과 요압 장군이 그대로 행하게 되고 완전범죄를 성취합니다. 자기방어를 위해 계획과 단계를 설정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자 극복하고 돌파하는 추진력과 사고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망할 추진력이어서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이 망할 추진력과 망할 사고력이 자기방어본능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지만 그것들에게 마음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들 중에서 마음을 주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첫 번째 현실로 모시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자기방어의식이 사라져버리는데 참 이상하죠.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괴물같이 보이는데 자기방어의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삼라만상에게 명령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방어의식을 가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내 판단과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판단과 생각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방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게 되므로 나를 지키려는 의식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방어의식으로부터 타인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고 그로부터 성취욕이나 추진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유머조차도 공격성의 표현이고 그 근간에는 자기방어가 있습니다. 확장하려는 것도 나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자기방어본능으로부터 괴물이 됩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늘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천사들이 보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영혼이 우리를 내려다 볼 때에 다윗이 밧세바를 마음에 담았듯이 우리 마음에 담은 것이 있다면 이미 괴물이 된 것으로 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가능성 앞에 놓여있는 죄적 인간들이지만,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음에 돈이 들어왔다면 돈을 추진하는데 망할 추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추진하다보면 변수가 생기므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나 아렌트 같은 지성인들은 인간의 괴물 됨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윗이 보여준 생각의 능력의 탁월함은 망할 사고력이고 망할 추진력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괴물이 된 상태에서도 인간은 얼마든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1의 현실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삶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근거와 자기 존재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괴물이 된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슐라이어마허(F. Schleiermacher, 1768-1834)는 “감정이 존재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시점에서 이미 괴물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도 괴물들의 모임이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식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이것 없이 괴물이 되지 않을 인간은 어떤 인간도 없고 모두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눈을 뜨고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의 성육신이시듯이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근본적인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므로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밧세바로 기뻐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돈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않는데 자기방어의식이 없어집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며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괴물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세상일에 대해 소원하는 마음이 죽었다는 의식을 갖게 됨으로서, 성경 66권의 말씀 전체가 내 안에서 체화(體化)됩니다. 이 성경 66권의 내용이 다 내 말씀이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단 한 권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라는 단순한 한 가지 일이 반복될 때에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육신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 사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5: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4복음서 자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쓴 책이므로 십자가는

출발점이며 종착점인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생각함으로 인간의 괴물 됨을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오직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괴물 됨을 피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조금만 정직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괴물을 수십 번 수백 번 이미 발견했어야만 정상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단 한 순간도 잊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